



령도자와 작가

꽃색갈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고

언제인가 너가수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였다.
가요 《철산봉에 코스모스 만발합니다》였다.

붉은색 파란색 천만꽃송이
산정길에 울긋불긋 피였습니다
장군님 다녀가신 그 길을 잊지 못해
철산봉에 코스모스 설레입니다

...

무산땅의 광부들이 철산봉 굽이굽이 산정길
에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피워놓고 오늘은 오실
가, 래일엔 꼭 오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는 노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품의 언어는 표현이 정확하여야 한다.』

서정이 짙은 노래를 주의깊게 들으시며 노래가 진실하여 좋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사색깊으신 음성으로 이 노래가사를 코스모스꽃색갈을 잘 판찰하지 못하고 쓰다보니 꽃색갈이 붉은색, 파란색이라고 되여있습니다, 코스모스꽃색갈을 그렇게 표현하는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옆에 있던 일군들은 모두가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았다.

무심히 노래를 듣고있던 그들은 노래가사에서 어느 대목이 잘못되었는지 선뜻 가려낼수 없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코스모스꽃에 파란색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꽃색갈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고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파란
색이 있던지 없던지 까리까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코스모스꽃에는 붉은색과 분홍색,
하얀색이 있지 파란색은 없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코스모스는 원래 여러가지 색갈로 된 꽃이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꽃색갈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였다.

(어쩌면 그리도 꽃들에 대하여서도 조예가
깊으실가?!)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
보시며 내 생각에는 붉은색이라고 하면 빨간
색과 분홍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파란색이라는 표현은 하얀색이라고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관찰력이 부족한 작가가 잘못
썼던 노래가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해박한 세계
속에 바로잡아지게 되였다.